

우리나라 發展을 爲한 日本의 資本 및
技術의 活用方案

1973. 6.



國 土 統 一 院

目 次

1. 머리말	3
2. 日本經濟의 發展과 그 特徵	5
(1) 日本經濟의 發展과 그 要因	5
(2) 技術發展과 生産性向上	9
(3) 貿易收支의 黒字基調	13
3. 日本의 對外 資本協力	17
4. 韓日經濟協力の 推移	27
5. 日本經濟의 變遷展望과 韓日經濟協力の 方向	33
(1) 日本經濟의 變遷展望	33
(2) 韓日資本協力の 方向	34
(3) 對日技術導入의 方向	40

1. 머리말

最近 우리나라의 對外經濟關係에서 日本資本의 進出增加가 두드러진 特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물론 最近의 갑작스러운 現象이라기보다는 1965年 韓日國交正常化協定이 調印된 이후 繼續된 韓日經濟協力の 強化趨勢라 하겠으나 特히 近年에 들어 日本의 經濟的 狀況이 이를 加速化시키고 있다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最近 日本은 莫大한 規模의 國際收支赤字를 보임으로써 國際的인 國際收支調整壓力을 받고 있으며 또 國內的으로는 空害問題 勞賃上昇등으로 既存産業의 再編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國際收支調整策 및 産業構造改編의 일환으로 外國, 特히 開發途上國에 對한 資本進出이 增加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繼續 強化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60年代의 經濟成長過程에서 外資導入이 主要한 役割을 해 왔거니와 앞으로도 重化學工業의 建設, 100億 달러 輸出基盤의 擴充等を 爲해서는 보다 많은 外資를 必要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最近 急激히 進出하고 있는 日本의 資本 및 技術水準을 어떻게 活用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主要 關心事라 하겠다.

즉, 우리는 이미 60年代를 통해 急速한 工業化를 爲한 外資의 無分別한 導入이 不實企業의 簇生, 國內分業關係의 歪曲등 많은 不條理를 낳은 것을 보아 왔으며 이에 對한 反省으로 일각에서는

內包的 開發論도 提起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S. 쿠즈네츠가 指摘한 바와 같이 現代經濟成長의 하나의 特徵이 各國 經濟의 國際化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事實이고 一般的으로 外資의 導入이 後進國의 經濟發展에 對하여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은 不認못할 事實이다. 단지 外資導入이 輸入國에 도움이 되고 안되고는 오로지 導入國의 政府나 企業이나 國民의 慧智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日本의 資本 및 技術을 우리나라에 有利하게 活用하기 爲해서 日本經濟가 가진 特徵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經濟協力에서 나타난 問題點들을 살펴 보고 앞으로 우리가 推進해 나가야 할 方向을 謀索해 보고자 한다.

2. 日本經濟의 發展과 그 特徵

(1) 日本經濟의 發展과 그 要因

戰後 日本經濟는 그 特徵을 高度成長이라는 한마디로 要約할 수 있으리만큼 質的 量的인 面에서 急速한 經濟成長過程을 밟아왔다. 第2次世界大戰에서의 敗戰 結果 國富의 40%以上을 상실하고 GNP는 戰前의 半으로 減少한 經濟力의 破壞狀態에서 戰後 10年만인 1955年을 戰後하여 戰前의 經濟水準을 回復하였으며 그 後에도 經濟의 高度成長趨勢는 加速化되는 기미까지 보여 西獨의 GNP를 능가하고 美國, 蘇聯에 이어 世界第3位의 經濟規模를 誇示하게 되었다.

또한 1955年 以後 技術革新을 指向한 生産設備의 擴大過程에서 設備投資의 內容이 所得彈力性이 높고 生産性向上의 여지가 많은 重化學工業部門에 集中됨으로써 産業構造도 急速한 工業化를 보였다. 즉, 1970年 現在 日本의 工業化率은 西獨과 함께 40%에 肉迫하고 있으며 특히 重化學工業化率은 世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生産力의 急激한 增大는 國際收支面에서도 反映이 되어 지금까지 資源不足國인 日本에 있어서 成長의 制約條件이었던 貿易收支의 赤字가 1965年을 轉換點으로 하여 黒字로 반전되었다. 이에 따라 國際收支에서도 經常收支黒字 資本收支赤字의 先進國패턴

<表1>

日本經濟成長指標

(單位：%)

	GNP 增加率	鉦工業生產 增加率	民間設備投資 增加率	雇傭指數 增加率
1956	8.0	22.4	39.0	6.9
1957	8.0	18.0	25.1	10.2
1958	5.4	△ 2.0	△ 4.7	4.4
1959	9.2	20.3	16.9	11.0
1960	14.1	24.8	40.9	16.1
1961	15.6	19.4	36.8	12.3
1962	6.4	8.4	3.4	7.2
1963	10.6	11.3	5.3	4.0
1964	13.7	15.8	20.0	5.1
1965	4.7	3.8	△ 6.4	2.2
1966	10.1	13.2	11.4	0.6
1967	13.6	19.5	27.0	3.3
1968	14.2	15.4	25.7	4.1
1969	12.1	16.0	20.9	3.5
1970	10.3	13.8	16.2	3.2

資料：日本銀行，經濟統計年報 及 經濟統計月報

日本經濟企劃庁，國民所得統計年報

을 보이게 되었으며 國際收支의 制約要因이 克服된 日本經濟는 生産力增加가 加速化되는 일면을 보여 貿易收支의 黒字規模가 繼統적으로 增加됨으로써 1971年에 엔화는 大幅的 切上을 強要당했으며 근년에 들어서 繼統 國際收支黒字国으로서의 國際收支調整策임을 強要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日本經濟는 戰後의 敗戰国에서 오늘날 國際收支黒字国으로서의 義務를 強制받고 있는 經濟代国으로 急速한 發展을 이룩해 왔다. 日本經濟가 長期間에 걸쳐 이러한 高度成長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成長過程의 各段階別로 景기를 擴大持續시키는 主要 刺戟要素가 있어 왔음은 否因할 수 없다. 이를테면 戰後의 急速한 復興을 가져온 復興要所와 國際政治上의 諸要因이 代表的인 例라 하겠다. 즉 日本은 戰爭에 依한 物的, 人的 損失에도 不拘하고 有休資源이 存在했고 勞動力 技術水準 및 企業家的 能力이 變하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正常狀態가 回復된 後 急速한 戰災復旧事業으로 轉換하여 成長速度에 拍車를 加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美·蘇冷戰의 激化로 美國의 對日政策이 轉換되어 強化된 日本經濟의 復興을 爲한 積極的인 원조와 兩陣營의 對立으로 拔擢한 韓國動亂의 特殊경기가 日本經濟復興을 促進한 要素가 되었음도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日本經濟의 發展過程을 特徵지우는 要因은 設備投資의 急速한 增加라 하겠으며 이러한 設備投資의 急速한 增加가 經濟全般에 무리를 加함이 없이 生産增大에 反映되어 온 것에서 日本經濟

發展의 要因을 찾을 수 있다. 즉 表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日本의 民間設備投資는 急速한 增加를 보였거니와 主要國의 國民所得 計定을 分析的으로 살펴 보면 日本의 經濟成長이 西獨의 輸出主導型, 美國, 英國의 個人消費主導型과 달리 民間設備投資主導型의 成長을 보였음이 斷的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急速한 設備投資의 增加가 經濟 전반에 무리를 加함이 없이 持續的인 高度成長을 主導하도록 뒷받침한 民間의 높은 貯蓄意識이 또한 日本經濟發展의 要因이 되어 왔다. 즉 日本의 GNP에서 消費支出이 차지하는 比重은 1955年의 62.5%에서 1960년에는 59.6%, 1970년에는 49.6%로 急激히 下落해 왔다. 이와 같이 높은 貯蓄水準을 뒷받침으로 旺盛한 設備投資가 國內生産의 우회도를 深化시킴으로써 産業基盤을 拡充하였기 때문에 日本經濟는 急速한 輸出入規模의 增加에도 不拘하고 GNP의 輸出入依存도가 자기 10%에 未達하는 資源不足國으로서는 異例的인 成長過程을 보였다.

또 日本經濟의 旺盛한 設備投資를 불러 일으킨 要因으로 代代적인 技術導入을 통한 技術革新要因, 그리고 戰後 世界貿易의 順調로운 伸張 및 日本産業의 國際競爭力強化에 따른 輸出의 急速한 增加등을 들 수 있는 바 이는 日本經濟發展의 特徵일뿐 아니라 日本의 技術과 資本을 活用하고자 하는 우리의 立場에서도 主要 關心事이므로 좀 더 자세히 考察해 보고자 한다.

(2) 技術發展과 生産性向上

前述한 바와 같이 日本의 經濟成長은 投資의 急速한 增加에 主導되었는 바, 이와 같이 活潑하게 나타난 投資는 日本經濟의 急激한 技術革新에 依해 刺戟된 바가 컸다. 즉 先進國과의 技術隔差를 解消하기 爲한 技術導入이 대대적으로 이루어 지고 生産設備의 近代化가 推進됨에 따라 設備投資는 急激한 增加를 보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技術革新過程을 통해 設備投資가 刺戟됨으로써 經濟成長이 促進되었을 뿐 아니라 技術의 發展에 依한 生産性向上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또한 日本經濟의 特徵이라 하겠다. 즉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2 - 62年間 日本은 平均 6.43%의 技術進歩率을 보였으며 이러한 技術進歩率이 附加價值增加率에 끼친 寄与度는 44.56%에 이르고 있다. 上記 技術進歩率은 같은 期間 중의 美國의 技術進歩率 2.80%에 比해 2倍以上의 急速한 發展이며 또 技術發展의 生産增加에 對한 寄与度는 資本이나 勞動의 寄与度보다 높다. 日本의 技術發展은 先進國에서 開發된 技術을 導入함으로써 研究 實驗段階를 節約하여 短期間에 工業化하는 形態로 進行되었는 바 日本의 技術導入內容이 日本의 産業發展과 相應하고 있는 것은 위의 生産增加 寄与도와 함께 技術發展이 日本의 經濟發展에 主要한 役割을 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表 3>에서와 같이 日本의 技術導入은 중화학공업 및 纖維工業에 集中되고 있는 바, 日本의 經濟成長過程에서 重化學工業과 纖維工業이

<表 2 >

日 本 の 技 術 進 歩 率

(1952 - 1962)

(單位 : %)

産 業	生産増加率 (A)	生産要素 増加率(B)	技術進歩率 (C)	寄 与 度 (C/A)	美国의 技術進歩率
식 료 품	8.23	6.82	1.41	17.1	1.41
섬 유	8.04	3.64	4.40	54.7	0.86
목 제 품	12.84	3.45	9.39	73.1	3.77
제 지 펄프	23.29	10.56	12.73	54.6	2.34
인 쇄출판	11.85	9.83	2.02	17.0	2.44
피 혁제 품	10.93	7.22	3.71	33.9	1.06
고 무제 품	17.15	9.69	7.46	43.5	0.98
화 학	26.65	7.82	18.83	70.6	3.46
석유석탄	17.43	8.50	8.83	50.7	1.89
요 업	12.84	10.14	2.70	21.0	2.48
금 속	14.14	9.07	5.07	35.9	0.25
기 계	19.86	11.12	8.74	44.0	1.97
수송기계	20.52	8.73	11.79	57.4	2.39
기 타	19.39	17.07	2.32	12.0	-
평 균	14.43	7.99	6.43	44.56	2.80

資 料 : 篠原三代平 「日本の 經濟成長」

急成長을 보인 것은 同部門에 對해 投資가 集中되었음과 함께 同部門의 技術發展이 急速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表 3 > 日本技術導入의 部門別內容

	1950~60		1961~70	
	건 수	구성비 (%)	건 수	구성비 (%)
합 계	2,920	100.0	12,083	100.0
경 공 업	226	7.7	1,997	16.5
식 품	46	1.6	189	1.6
섬 유	88	1.0	910	7.5
요업·토석	25	0.9	163	1.3
플라스틱제품	13	0.4	392	3.2
중 화 학 공 업	2,388	81.8	8,811	72.9
금 속	488	16.7	1,108	9.2
일 반 기 계	498	17.1	3,552	29.4
전 기 기 계	396	13.6	1,532	12.7
수 송 기 계	121	4.1	428	3.5
화 학	88.5	30.3	2,191	18.1

資料：日本統産性，통상백서

이와 같은 급속한 技術發展과 設備投資의 增大에 依한 勞動場比率의 增加로 日本의 生産性은 他先進國에 比해 훨씬 빠른 速度로 上昇되었다. 즉,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日本의 生産性은 1960 ~ 70年間 年平均 11.3%의 上昇을 보임으로써 他先進國과는 懸隔한 隔差를 보이고 있다. 設備投資의 急速한 增加와 함께 技術發展에 依한 生産性向上이 急速하였다는 것이 日本經濟의 또 하나의 特徵이며, 이것은 設備投資의 急速한 增加가 高水準의 民間貯蓄으로 뒷받침됨으로써 國內物價가 安定되었다는 것과 結付되어 日本産業의 國際競爭力을 強化시키고 貿易收支의 黒字를 가져온 주요 要因이 되고 있다.

<表 4> 主要國의 生産性 上昇率比較

(製 造 業)

(單位 : %)

	일 본	미 국	영 국	서 독	프 랑 스	이 탈 리 아	캐 나 타
1960	13.1	4.7	4.8	6.1	7.3	11.1	-
1965	3.5	2.8	3.8	3.7	3.7	10.9	2.8
1969	15.0	2.6	3.2	5.1	13.5	3.4	3.3
1970	13.9	3.4	1.6	1.4	5.3	4.0	2.4
1960-70 평 균	11.3	3.3	3.2	5.5	6.2	7.2	3.2 ¹⁾

資料 : 日本經濟企劃庁, 世界經濟白書

註 : 1) 캐나다는 1965 - 70年間 平均임.

(3) 貿易收支의 黒字基調

한편 日本經濟의 急速한 成長過程에서 輸出의 急激한 增加를 通해 貿易收支도 1965年을 轉換點으로 만성적인 赤字에서 脫皮하여 黒字로 發展되었다. 이와 같이 日本經濟가 急速한 輸出增大를 이룩한 것은 첫째, 日本經濟의 成長이 重化學工業에 對한 集中的 投資에 依해 主導되었는 바, 世界貿易에서도 重化學工業製品의 需要가 輕工業製品에 比해 相對적으로 急速히 增加되었으며 둘째, 日本産業의 生産性向上으로 國際競爭力이 強化되었기 때문이다. 즉 急速한 生産性的 向上으로 因해 國際競爭力의 指標인 賃金코스트面에서 日本은 餘他先進國보다 有利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 (<表 5>參照) 셋째, 日本은 天然資源이 不足한 國家이므로 經濟發展에 必要한 原料를 獲得하기 爲해서는 輸出의 增大가 必須的이므로 強力한 輸出支援政策이 施行되어 온 것도 한 要因이다.

이와 같은 內的 輸出與件과 國際貿易의 순조로운 伸張이라는 外的 與件에 힘입어 60年代中 日本의 輸出增加率は 年平均 15.6%에 達함으로써 世界貿易年平均增加率 9.9%는 勿論 EC제국의 增加率 11.6%를 훨씬 上廻하였다. 이에 따라 1965年以後 日本의 國際收支는 그 양상이 基本的으로 달라졌다. 즉 先進國型 國際收支라 할 수 있는 「經常收支의 黒字, 資本收支의 赤字」型으로 轉換되어 資本輸出國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每年 貿易收支의 黒字規模가 擴大됨으로써 長期資本收支의 赤字에도 不拘하고 國際收支의 黒字는 繼續 增大되어 왔다. 즉 貿易收支의 黒字幅이

<表 5 >

主要国の 賃金コスト 比較

(1963 = 100)

	日 本	美 国	英 国	西 独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1960	92.4	103	94	86	89	87	-
1965	103.6	99	107	105	102	100	102
1966	102.4	101	112	110	101	95	105
1967	99.4	102	113	105	102	96	110
1968	99.9	107	115	101	106	95	111
1969	101.1	110	121	106	107	99	116
1970	104.5	113	134	115	109	115	123

資料 : 表 5 와 같음.

註 : 賃金コスト지수 = 임금지수 / 생산성지수

1965 年の 19 億달러에서 1970 년에는 40 億달러, 1971 년에는 78 億달러, 1972 년에는 90 億달러로 増大함으로써 長期資本收支, 貿易外收支面에서의 赤字가 増加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綜合收支의 黒字幅은 1965 年の 4 億달러에서 1970 년에는 14 億달러, 1971 년에는 77 億달러, 1972 년에는 47 億달러의 規模로 急増하여 왔다.

이와 같은 日本國際收支의 不均衡은 貿易收支의 黒字基調라는 構造的 不均衡에서 由來하는 것으로 마침내 日本엔화의 2 次에 걸친 大幅 切上을 初來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貿易收支의 黒字基調로

인한 通貨의 評價調整過程에서 日本은 지금까지의 對內外的인 經濟 政策의 根本적인 轉換을 要求하는 壓力에 直面하고 있다. 즉 對內的으로는 지금까지의 不均衡成長에 依한 二重構造的 經濟體質의 深化, 低賃金위에서의 輸出擴大등의 國民經濟的 問題點과 對外的으로는 貿易收支의 大幅 黒字에 따라 黒字國責任論에 입각한 國際收支 調整壓力에 當面하게 되었다.

<表 6 >

日本의 國際收支 推移

(單位: 백만 달러)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경 상 수 지	912	1,254	△ 190	1,048	2,119	1,970	5,797	6,656
무 역 수 지	1,901	2,275	1,160	2,529	3,699	3,963	7,787	8,999
수 출	8,332	9,641	10,231	12,751	15,679	18,969	23,566	28,077
수 입	6,431	7,366	9,071	10,222	11,980	15,006	15,779	19,079
무역 외수지	△ 884	△ 886	△ 1,172	△ 1,306	△ 1,399	△ 1,785	△ 1,738	△ 1,874
이 전 수 지	△ 85	△ 135	△ 178	△ 175	△ 181	△ 208	△ 252	△ 468
장기 자본수지	△ 415	△ 808	△ 812	△ 239	△ 155	1,591	△ 1,082	△ 4,472
단기 자본수지	△ 61	△ 64	506	209	178	724	2,435	2,035
오 차 및 누 락	△ 51	△ 45	△ 75	84	141	271	527	522
총 합 수 지	405	337	△ 571	1,102	2,283	1,374	7,677	4,741

資 料 : 日本銀行, 經濟統計月報

그러므로 最近에 들어 對韓 진출이 積極化되고 있는 것도 이들
問題點에 對한 脫出口로서의 側面이 보다 強하다. 하겠다.

3. 日本의 對外 資本協力

戰後 日本의 對外資本協力は 終戰 直後の 샌프란시스코平和條約에 基礎한 日本의 賠償問題에서 始作되었다. 즉, 1954年 11月 對버마 賠償協定の 締結로부터 1959年 5월 對越南賠償協定에 이르기까지 日本은 버마·필리핀·인도네시아·越南등 4個國과 賠償協定에 依한 對外經濟協力の 門戶가 열리게 되었다. 2次大戰中 日本이 끼친 손해 또는 고통에 對한 賠償이라는 이름밑에 이루어진 日本의 對外經濟協力の 效果는 一次的으로 賠償對象國에 對한 日本商品의 輸出 礎進으로 나타났다. 즉 賠償의 支拂이란 日本產 財貨 및 서비스의 供與를 意味하였기 때문에 이는 日本産業系에 劃期的인 海外 수요의 轉機로 나타났고 그 波及效果는 戰後 日本 重化學工業化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까지 미쳤던 것이다.

이를테면 戰後 美國의 海外無償援助의 經濟的 效果와 거의 同一한 意味를 갖는 이 日本의 賠償은 日本商品의 安定的 海外市場 擴保라는 基盤을 構築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또한 日本은 一般 的인 연불수출信用供與 엔借款 民間直接投資等 方式의 對外經濟協力 의 길을 열게 되었다. 特히 1958年의 第1次 對인도 엔借款協 定의 締結을 基點으로 日本의 對外經濟協力은 커다란 전기를 보였 으며 民間베이스上的 經濟協力이 뚜렷이 增加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日本의 對外經濟協力은 政府베이스의 賠償이 主導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 賠償中心의 協力패턴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表 7 >

形態別 日本의 對外

	1961	1962	1963	1964
정 부 베 이 스 (A)	106.9	86.8	140.3	115.9
무 상 증 여	67.8	74.6	76.7	68.7
배 상	65.4	71.0	72.2	62.9
기 술 협 력	2.4	3.6	4.5	5.8
정 부 차 관	27.7	5.0	51.5	37.5
국 제 기 관 출 자	11.4	7.2	12.1	9.7
기 타	-	-	-	-
민 간 베 이 스(B)	274.5	199.4	127.3	175.3
수 출 신 용	180.7	130.3	50.6	135.7
직 접 투 자	98.4	68.4	76.7	39.3
국 제 기 관 용 자 등	△ 4.6	0.7	-	0.3
합 계 (A + B)	381.4	286.2	267.6	291.2
(A + B) 대 GNP (%)	0.71	0.49	0.40	0.36
(A) 대 GNP (%)	0.20	0.15	0.21	0.14
(A + B) 대 전년증가율(%)		△ 25.0	△ 6.5	8.1

資 料 : 日本統産性, 經濟協力의 現狀と問題点

經濟協力 実績 推移

(單位 : 백만달러)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243.8	485.3	611.1	678.3	811.4	1,151.6
82.2	104.7	138.4	117.0	123.4	121.2
76.2	97.1	127.4	103.3	104.5	99.6
6.0	7.6	11.0	13.7	19.0	21.6
144.1	130.0	202.2	190.5	216.2	250.3
17.5	50.6	44.7	48.8	95.9	86.5
-	200.0	225.8	322.1	375.8	693.6
242.1	139.8	186.4	371.0	451.7	672.3
154.7	71.7	137.6	280.2	299.6	386.9
87.4	68.5	48.9	90.8	144.1	265.0
-	△ 0.4	△ 0.1	-	8.0	20.4
485.9	625.1	797.5	1,049.3	1,263.1	1,824.0
0.55	6.62	0.67	0.74	0.76	0.93
0.28	6.48	0.51	0.48	0.49	0.59
66.9	28.6	27.6	31.6	20.4	44.4

<表 8 >

国 別 年 度 別 日 本

	1957-60	1961-64	1965	1966	1967
인도네시아	-	-	-	30.0	95.0
인도	50.0	220.0	60.0	45.0	52.0
파키스탄	-	105.0	-	60.0	30.0
한국	-	-	200.0	-	-
중국	-	-	150.0	-	-
브라질	-	50.1	-	13.3	-
타이	-	-	-	-	60.0
말레이시아	-	-	-	50.0	-
I B B	-	-	-	10.0	-
멕시코	-	-	-	10.0	-
버마	-	-	-	-	-
세일론	-	-	50.0	5.0	5.0
나이지리아	-	-	-	30.0	-
필리핀	-	-	-	-	-
기타 ¹⁾	11.3	-	33.4	19.0	-
합계	61.3	375.1	448.4	272.3	242.0

註：1) 其他에는 30 백만달러 미만의 나라로 15 개국임.

2) 1971年 수치는 9월말 현재임.

3) 공여승인 기준임.

외 엔 借 款 共 与 实 績

(단위 : 백만달러)

1968	1969	1970	1971 ²⁾	合 計	
				金 額	構 成 比 (%)
82.0	81.6	100.0	223.7	612.3	24.8
45.0	52.0	25.4	61.4	610.8	24.7
30.0	30.0	-	-	255.0	10.3
-	-	20.0	30.0	250.0	10.1
-	-	-	22.5	172.5	7.0
-	-	-	26.0	89.4	3.6
-	-	-	-	60.0	2.4
-	-	-	-	50.0	2.0
10.0	-	10.0	20.0	50.0	2.0
-	10.0	30.0	-	50.0	2.0
30.0	-	-	10.0	40.0	1.6
5.0	5.0	5.0	3.0	30.0	1.3
-	-	-	-	30.0	1.2
30.0	-	-	-	30.0	1.2
6.2	11.0	12.7	43.0	136.6	5.5
238.2	189.6	203.1	439.6	2,469.6	100.0

對外經協基造를 構築한 것은 1965年 以後라 할 수 있다.

이 1965年을 轉換点으로 日本의 貿易收支는 終戰의 赤字에서 黒字로 發展하여 日本은 「貿易收支의 黒字, 資本收支의 赤字」라는 先進国型 國際收支로 履行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國際收支의 黒字와 戰後의 急速한 經濟成長에 依한 日本經濟의 國際的 地位向上은 開發途上国에 對한 經濟協力の 擴大와 그 條件緩和라는 國際的 要請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日本의 對外經濟協力度도 종래의 倍償中心에서 벗어나 政府借款과 民間베이스經濟協力を 中心으로 急激히 그 規模가 증대되어 왔다. 그러면 이와 같은 國內外的 要請에 따라 最近 急速히 擴大되어 가는 日本의 對外資本協力の 內容을 살펴 보기로 하자.

日本의 對外資本協力は 우선 그 形態面에서 長期信用供与, 海外投資 및 贈与(賠償 其他 無償베이스經協)의 3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의 形態는 勿論 兩國間베이스의 經協이고 이 외에 世界銀行의 出資等 國際經協機構를 통한 다국간 베이스의 經協도 存在하고 있음은 勿論이다. 또 資本協力 즉, 信用供与가 이루어질 때 그 關与主体를 基準으로 하여 政府베이스經協과 民間베이스經協으로 區分할 수 있는 바 以上の 區分에 依한 1970年末까지 日本의 年度別 對外資本協力は <表7>과 같다.

먼저 政府베이스의 資本協力は 無償贈与(賠償) 政府借款(엔借款)

및 國際機關出資라는 세 가지 形態로 大別되는데 1965年부터는 엔
借款이 전형적인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 엔借款은 兩國 政府間의
合議에 依拠하여 日本의 輸出入銀行, 海外經濟協力基金 또는 시중은
행단 등의 機關을 통해 供與되는데 앞서 指摘된 1958年度 인도
에 對한 50백만달러의 輸出入銀行借款을 처음으로 1971年 9月末
까지 2,470백만달러의 供與実績을 나타내고 있다.

賠償을 主內容으로 하는 無償贈與方式의 經協은 1956年 6月
필리핀政府와의 賠償協定을 始初로 그후 1958年 인도네시아에 對
한 賠償協定에서 本格化되었고 1964年까지만 하더라도 엔借款보다
더 큰 比重을 차지하였는 바 이는 賠償으로부터 始作된 日本經濟
協力の 特徵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最近에 들어서는 過去에 조
인된 賠償의 年度別 執行만 이루어 지고 있는 實情이며 단지 無
償베이스의 技術協力資金이 持續적으로 增加해 가고 있을 따름
이다.

以上の年 借款 및 無償贈與実績에다 國際機關에 對한 出資等を
包含한 日本의 총 정부베이스經協은 1970年中 1,152백만달러에 달
하여 1961年の 107백만달러보다 약 10倍가 늘어났다.

한편 民間베이스經協에 있어서는 1970年中 1年超過의 輸出信用
이 387백만달러 民間의 海外直接投資가 265백만달러 등으로 合計

672 백만달러에 달하고 1961년의 275 백만달러에 비하면 약 2.5
배로 증가된 것으로 위의 政府베이스經協보다는 그 증가율이 둔화한
便이다.

以上 政府베이스 및 民間베이스에 依한 日本의 1970年中 總대
의經濟協力實績은 1824 백만달러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1961年
의 381 백만달러보다 약 5 배가 증가한 것이며 특히 그 증가의
大部分이 1965年 以後에 나타났음은 最近에 들어 日本의 對外經
協이 急激히 增大해 가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日本의 對外資本協力の 急激한 增加는 지난 60年代를 통한 國
際經濟協力기운의 고조 이를 통한 先進國에 對한 壓力등 外的인
環境과 함께 日本經濟의 構造的 特性和 현실의 發展段階가 이를
促進하는 一面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첫째 제일차적 資源, 天然資源의 確保問題가 있었다. 원래
日本은 天然資源이 極히 不足한 條件에 놓여 있고 그 위에 또한
最近과 같은 持續的 高度成長을 維持하기 爲해서는 한결 더 所要
資源의 于先的 確保가 要請되는 狀態에 있다.

여기에 日本은 海外로부터 所要資源의 低廉하고도 安定的인 供給
源確保問題를 經濟發展의 必要不可缺한 先결조건으로까지 提起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天然資源確保를 爲한 代表的인 投資로 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中近東地方에서의 해저유전개발 ② 알라스카地方에서의 펄프開發 ③ 인도네시아에서의 森林資源開發 ④ 필리핀, 캐나다, 페루등지에서의 구리, 연, 아연 등 지하자원 開發과 같은 事業을 그 좋은 例로 들 수 있다.

둘째, 단순한 利益配當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 아닌 長期的인 觀點에서의 輸出市場確保를 爲한 資本協力の 必要性이다. 技術패턴의 變革이 激甚한 現在の 資本主義經濟化에서 技術의 老朽化 또는 産業의 斜陽化現狀은 一般的이다. 여기에 日本經濟처럼 急速한 發展을 거듭하는 境遇에는 老朽化하는 過剩施設의 処分이나 그 후속 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對外資本協力は 더욱 重要的 意義를 갖는다. 日本의 海外投資에서 ① 브라질을 비롯한 南美地域에의 造船 및 農機構工場建設 ② 타이 등 東南亞地域에의 自動車組立 제당 나일론工場 등의 建設 ③ 말레이시아에의 化學조미료공장 建設 등은 이 境遇의 典衡的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이러한 目的의 資本協力は 借款供與와 같은 間接投資方式과 直接投資가 同時적으로 行하여지는 境遇가 많으며 또는 借款을 投資로 轉換하는 데도 때때로

찾아 볼 수 있다.

以上과 같은 日本對外經濟協力の 현실적 必要性은 地域別 資本協力이나 産業別 資本協力実績에서 잘 알 수 있다. 즉 日本의 資本協力実績은 先進国이나 後進国에 고루 擴大되고 있는 바 先進地域에 對한 內容은 主로 船舶의 연불수출, 輸出市場確保를 爲한 서비스業의 投資등으로 나타나고 後進地域에 對한 內容은 過剩施設을 処分하기 爲한 生産부문에의 플란트輸出, 지하자원개발을 爲한 광업 部門의 投資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4. 韓日經濟協力の 推移

우리나라는 1960年代에 들어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樹立으로 높은 成長目標와 急速한 工業化政策을 追求해 왔는 바 이는 莫大한 資本財需要에 따른 外資需要를 隨伴하였다. 이에 따라 政府는 外資導入 促進法과 關聯法規를 制定하여 外國投資家에 대해 法律이 許容하는 範圍内에서 最大限의 保護와 特惠를 賦与하는 同時에 內國인이 外國資本을 導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해 積極的으로 支援하는 등 基本的으로 外資導入의 量的擴大를 指向하는 政策을 取해 왔다. 이와같은 過程에서 韓日國交正常化協定으로 시작된 韓日經濟協力도 量的인 擴大過程을 밟아 왔다.

1965年 6월에 조인된 韓日協定の 經濟的인 측면에서의 主內容은 첫째 韓國은 日本으로부터 請求權資金 5億달러 (무상자금 3억, 유상자금 2억)와 商業借款 3億달러이상을 향후 10年間 分割共與 받도록 한 請求權 및 經濟協力에 關한 協定과 둘째 그때까지 平和線設定에 따라 規制받아 온 韓國沿岸에서의 日本漁業活動을 再調整한 所謂 漁業協定の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問題 즉 청구권자금의 處理問題가 그간의 韓日會談關係에서의 가장 基本的인 觀念의 하나로 되어 왔음을 考慮할 때 사실 韓日國交正常化는 韓國으로 하여금 日本으로부터의 資本 및 技術의 導入 다시 말하면 對日經濟協力の 門戶를 튼 經濟的 性格이 強한 事件으로 規定될 수 있다. 여하튼 이로부터 우리나라는 過去 주로 美

國으로부터 들어 오던 所要外資를 점차 日本으로 轉換하는 過程을 밟게 되고 각종 形態의 對日經協은 해를 거듭할수록 強化되었다.

먼저 청구권자금 5億달러중 無償資金에 의한 導入実績을 보기로 하자. 우리나라政府는 同資金의 效率的 使用을 위해 諸般입법措置와 관리기구를 設置하고 우선적으로 農水産業의 近代化에 使用하고 余裕가 있으면 工業化의 기반이 되는 社会間接資本部門에 使用하도록 했다. 同時에 청구권자금의 早期使用을 要請하기에 이르러 그 要請額

<表 9 >

請求權資金 導入実績

(單位：百萬달러)

	無 償 資 金		有 償 資 金		合 計	
	計 劃 額	導 入 額	計 劃 額	導 入 額	計 劃 額	導 入 額
1966	47.8	29.7	44.9	12.1	92.7	41.8
1967	36.6	30.2	29.1	25.4	65.7	55.6
1968	30.0	33.6	20.3	16.2	50.3	49.8
1969	40.0	31.1	17.7	21.4	57.7	52.5
1970	30.0	24.6	-	12.5	30.0	37.1
1971	29.4	30.8	8.0	16.7	37.4	47.5
1972	30.0	26.4	34.9	29.6	64.9	56.0
합 계	243.8	206.3	154.9	133.9	398.7	340.2

資 料： 經濟企劃院

을 擴大하여 왔으나 物資導入実績은 計劃額에 未達하고 있다. 즉 1972年 現在 無償資金導入実績은 206百萬달러로서 計劃額의 84.6%에 이르고 있을 뿐이다.

다음 有償請求權資金 2億달러는 본래 日本의 「海外經濟協力基金」에서 提供하는 政府베이스借款으로써 그 導入実績을 보면 1972年 까지 134百만달러로 역시 計劃額 155百만달러에 未達하고 있다.

<表 10 > 年度別 形態別 日本資本導入推移

(單位：百萬달러)

	公共借款	商業借款	直接投資	合 計	總外資導入에 대한比率	
					總外資導入額	比率(%)
1963	-	-	-	-	147.5	0
1964	-	0.4	-	0.4	99.5	0.3
1965	-	70.8	1.2	72.0	177.1	40.6
1966	44.9	67.1	-	112.0	261.7	42.8
1967	35.4	36.2	8.7	80.3	264.1	30.4
1968	18.6	110.0	11.7	140.3	577.8	24.3
1969	11.2	71.9	27.1	110.2	906.7	12.2
1970	13.1	82.5	21.2	116.8	548.1	21.3
1971	101.9	62.9	26.0	190.8	691.5	27.6
1972	63.5	101.9	78.6	244.0	718.4	34.0

資 料：經濟企劃院

註：1969年까지는 確定基準이고 1972年부터는 到着基準임
(但 投資除外)

商業借款을 보면 우리나라의 對日外資導入은 1965年 韓日國交正常化協定調印 이전에는 1964年 大船造船과 가와테쓰(川鉄)商社와의 船舶 건조 및 수리자재도입을 위한 380천달러의 商業借款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후 國交가 正常화된 1965년에는 7件에 總 70,778천달러에 達하는 商業借款이 들어와 對日外資導入이 本格化 되었고, 同実績은 同年중 우리나라의 總商業借款実績의 무려 90.6%를 차지하는 比重이었다.

1966年과 1967년에는 각각 前年보다 약간 減少를 보였으나 1968년에는 다시 增加하였으며 1972년에는 드디어 美國을 能加하여 우리나라 第1位의 借款導入對象國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外資導入法의 規定에 의한 3年以上의 信用公與外에 그 以下の 短期信用公與가 貿易베이스로 상당한 規模로 導入되고 있기 때문에 商業베이스의 韓日經協을 繼續 強化되어 왔다 하겠다.

이러한 借款베이스와는 달리 日本의 對韓 直接 投資는 在日韓國 僑胞의 本國投資라는 形態로 始作되었다. 即 1965年 日本僑胞資本의 導入이 許容되자 在日僑胞에 의한 熔成磷肥)工場 및 慶州觀光 센터의 建設을 위한 700천달러 및 500천달러의 本國投資가 그 嚆矢였다. 그후 日本의 對韓 直接投資는 계속 擴大되어 1971년에는 美國을 앞지르게 되었으며 1972년에는 總外國人直接投資의 67.1%라는 圧倒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過程을 通하여 日本의 對韓 經濟協力은 1966년부터 1969년까지는 總外資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減少하여 왔으나 1970

년부터 다시 增加하여 1972년에는 總外資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34.0%에 이르고 外資導入額은 244百萬달러에 達하고 있다. 이와 함께 日本의 經濟協力の 主內容은 商業借款과 直接投資로 나타나고 있으며 特히 直接投資가 1972년에 들어 激增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對日資本導入의 推移와 더불어 技術導入推移를 살펴 보면 表 11에서도 보는 것처럼 1964년까지는 日本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은 없었다. 1965년에 처음으로 金星社와 日本의 히다찌(日立)간에 TV 및 FM 라디오製作技術契約이 맺어졌고 그후 日本技術의 導入은 顯著히 增加했다. 即 1972年末 現在 우리나라의 總外國技術導入件數는 306件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 對日導入件數가 全體의 約 70%에 該當하는 221件을 占하고 있을만큼 日本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은 旺盛한 편이었다.

資本導入의 境遇와 比較하여 技術導入에 있어서 對日比重이 이렇게 圧倒的이라고 하는 事實은 地理的인 隣接關係로 導入交渉上의 便宜에 基因하고 있다고도 하겠으나 그보다는 國內企業이 goodwill이 높은 日本会社와의 技術提携로 販賣效果를 높이려는 目的에서 特히 電子 및 電氣器機 機械工業部門에 對日本導入이 集中되어 있고 또 兩國의 技術패턴이 傳統的으로 類似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表11>

国別 技術導入認可推移

(単位：件数)

	日 本	美 国	西 独	其 他	合 計
1959 - 64	-	6	1	3	10
1965	1	3	-	-	4
1966	7	5	2	-	14
1967	24	7	1	1	33
1968	32	7	1	3	43
1969	38	2	1	1	42
1970	60	7	7	7	81
1971	30	4	1	2	37
1972	29	9	2	2	42
合 計	221	50	16	19	306

資 料：経済企劃院

5. 日本經濟의 變遷展望과 韓日經濟協力の 方向

(1) 日本經濟의 變遷展望

戰後 日本經濟는 積極的 技術導入政策에 의한 技術進步, 國內資源의 活用, 높은 貯蓄水準을 背景으로 한 國際收支와 高度成長을 兩立시키는 發展過程에서 世界第3位의 經濟大國으로 急成長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日本特有의 成長為主政策의 施行過程에서 累積된 不條理는 오늘날 經濟各部門의 罅(gap)으로 나타나 對內外的인 經濟政策의 轉換을 強要하고 있다. 資源不足國이라는 立場에서 國際수지적자를 解消하기 위한 諸般 輸入抑制 輸出促進政策은 日本經濟의 體質에 深化되어 國際수지가 大暴 黑字를 보인 오늘날에도 各種의 輸入장벽을 形成하여 國際수지의 不均衡을 深化시키고 있다. 또 지금까지의 重工業化를 推進해 온 不均衡的 產業政策은 國內產業의 二重構造를 形成하고 있으며 國際競爭力을 強化하기 위해 取해 온 低賃金政策은 最近의 輸入인플레이션과 함께 國民福祉의 罅을 形成하고 있다.

그러므로 日本의 國際수지조정대책은 產業政策의 變化로 나타날 것이며 또한 產業政策의 轉換은 國際收支造成目的만이 아니라 上記한 日本經濟의 諸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綜合對策의 樣相을 띄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產業政策은 輸出產業의 內收轉換을 包含하는 產業構造의 改編을 意味한다. 이에 따라 日本도 美國이나 英國과

같이 脱工業化를 指向하여 지금까지의 大型設備投資中心의 成長에서 個人消費支出주도의 成長패턴으로 轉換될 것이다. 이와 함께 國際收支의 黒字調整策으로서의 經濟協力強化가 産業의 國際分業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두가지 側面에서 볼 수 있는바 그 하나는 지금까지의 低賃金水準으로 國際市場에서 優位를 차지하였던 纖維産業, 民需用 電子工業등 勞動集約的 産業의 開發途上国進出이며 또 하나는 国内에서 公害過多發生業種으로 指目되는 一部 重化学工業의 開發途上国進出이다.

이와같이 国内의 低生産性部門을 整理하고 高生産性部門을 強化함으로써 日本經濟는 全國民의 福祉를 向上시키는 方向으로 나아갈 것이다.

(2) 韓日資本協力の 方向

우리 經濟는 지난 60年代의 高度成長過程에서 外資導入의 役割이 컸었고 또 앞으로도 政府가 指向하고 있는 高度成長을 爲해서는 더 많은 外資導入을 必要로 하고 있다. 即 經濟企劃院에 依하면 今年 5月까지 우리나라가 導入한 外國借款은 36億달러인데 비해 앞으로 重化学工業建設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必要로 하는 外國資本은 1981년까지 99億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對外進出을 強化하고 있는 日本資本의 效率的인 使用이 우리에게 큰 關心事라 하겠다.

이러한 觀點에서 지난 60年代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日本資本이

어떤 特徵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 앞으로 改善해야 할 方向을 模索하기로 하자.

첫째, 지난 60年代의 日本의 資本協力은 攄미셀 베이스에 置重되어 왔다. 이는 당시 日本의 經濟的 構造에 따른 것으로 日本의 經濟協力이 不足天然資源의 確保와 国内過剩施設의 処分 및 그 후속수출의 增大라는 投資的 性格이 強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對外經協가운데서도 開發途上國의 開發支援이라는 政府베이스 經協보다도 民間베이스의 商業借款의 比重이 커서 1960年代 우리나라의 政府베이스經協 実績中 對日比重은 14.6%인데 對해 民間베이스經協의 그것은 23.2%를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이와같이 比重이 큰 商業借款의 業種別 構成을 보면 總額의 65.7%라는 圧到的인 比重으로 製造業에 導入되고 있다. 다시 製造業의 業種別 構成을 보면 纖維工業, 化學工業, 要業工業에 製造業 全體의 90%가까이가 集中되고 있다.

따라서 纖維工業은 化學纖維 業은 시멘트, 化學工業은 化學肥料가 대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日本에 대한 商業借款은 以上の 3個 品目에 集中되었다. 이 3個品目は 日本의 生産能力이 컸고 또 技術革新이 急激한 것이었다는 點에서 過剩施設의 処分을 통한 플랜트 輸出의 一面이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日本의 資本協力에서 最近 急激한 增加를 보이고 있는 直接 投資를 보면 總額의 86%가 製造業部門에 投資되었으며 그중 90%가까이가 機械, 金屬, 纖維工業에 投資되었다. 이처럼 機械工業(주로

<表 12>

1960年代의 対日外資導入 内訳

(单位:千달러)

	公共借款		商業借款		直接投資		合計		
	金額	構成費(%)	金額	構成費(%)	金額	構成費(%)	日本資本導入總額(A)	外資導入總額(B)	A/B(%)
농업	2,479	2.3	-	-	-	-	2,479	49,523	5.0
수산업	-	-	17,591	4.9	563	1.2	18,154	77,861	23.3
광업	-	-	-	-	125	0.3	125	25,230	0.5
제조업	-	30.0	234,061	65.7	41,918	86.1	308,979	1,117,649	27.6
식품	-	-	-	-	109	0.2	109	17,315	0.4
제재·제지	-	-	6,285	1.8	254	0.5	6,539	49,250	13.3
섬유	-	-	88,399	24.8	11,262	23.2	99,661	321,824	30.3
비료	-	-	45,062	12.6	700	1.4	45,762	125,329	36.5
화학	-	-	15,180	4.3	1,828	3.8	17,008	83,581	20.3
요금	-	-	50,857	14.3	100	0.2	50,957	159,278	32.0
금	-	-	20,232	5.7	13,018	26.7	33,250	101,959	32.6

기	3,000	2.7	8,046	2.2	13,936	28.6	24,977	92,531	28.0
중소기업	30,000	27.3	-	-	(12,176)	(25.0)	30,000	(41,308)	60.7
기타	-	-	-	-	716	1.5	716	46,307	1.5
전	1,780	1.6	62,864	17.0	-	-	64,644	515,336	12.5
운수업	32,769	29.8	31,986	9.0	3,116	6.4	67,871	354,243	19.2
통신업	2,800	2.5	-	-	-	-	2,800	41,721	6.7
상하수도	4,220	3.8	-	-	-	-	4,220	19,163	22.0
건설업	33,033	30.0	4,071	1.1	2,450	5.0	39,554	93,534	42.3
호텔·주택	-	-	5,827	1.6	500	1.0	6,327	15,941	38.7
기타	-	-	-	-	-	-	-	124,052	0
합	110,081	100.0	356,400	100.0	48,672	100.0	515,153	2,434,253	21.2

資料：經濟企劃院

註：1) ()에는 전라 전기기기제조업임

2) 1969年末까지임

電子, 電氣機器工業)이나 金屬工業의 比重이 높은 것은 在日僑胞에 의한 小規模投資로서도 可能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同業種이 組立加工의이고 勞動集約的 性格이 強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外國人 投資의 가장 큰 長點으로 列擧되는 生産技術 및 經營管理技術의 進수가 별로 크지 않았다 하겠다.

지난 60年代의 日本의 對外經協 및 韓日經協実績의 分析을 통해 나타난 이상의 特徵的 諸事實에 비추어 앞으로의 韓日經濟協力方向을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日本은 現在 深化되고 있는 國際收支의 黑資不均衡을 是正하기 위해 積極的인 進出을 推進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形態로든지 對外經協規模는 크게 擴大될 것이 分明하고 特히 單期性 商業借款形態보다는 長期의 財政借款形態로 많이 이루어 지리라 보여 진다. 이 點은 現實의 不理한 協力條件의 緩和 이룰 때면 條件部援助의 廢止問題등과 關聯해서 보더라도 充分한 根拠가 있다.

그러므로 日本公共借款의 推進을 통한 經濟協力方向이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即 日本公共借款의 條件은 美國의 AID借款보다는 比較的으로 不理하지만 商業借款보다는 一般的으로 有利하다. 特히 우리나라는 産業의 高度化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道路, 港灣의 整備등 社會間接資本을 補充해야 할 必要가 클 것이므로 公共借款을 中心으로 資本協力を 追求해야 할 것이다.

또한 外國資本의 導入分野를 再調整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日本資本은 數個業種에 集中的으로 進出하는 利潤追

求의 性向이 強하게 나타났다. 물론 資本移動의 動機가 높은 利潤의 確保에 있겠지만 資本導入國의 立場에서는 이를 自國에 有利하도록 吸收하는 力量이 必要하다. 그러므로 直接 投資에 있어서 外國資本 및 技術이 반드시 必要한 部門과 國內企業의 競爭能力이 있는 部門에는 優待措置의 차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함께 기간産業의 經營權을 內國人이 確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점은 지금까지의 勞動集約的 産業과 달리 期間産業에 外國資本이 參與할 경우에는 반드시 念頭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部門간의 調整에 있어서 經濟協力の 多變化問題를 들 수 있다. 우선 一國에 대한 經濟協力の 過重한 依存은 자칫하면 특정국의 景氣變動에 따라 本意아닌 影響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重化學工業과 같은 基幹産業의 建設이 一國에만 依存하게 됨은 政治的, 社會的으로도 敏感한 反應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므로 産業部門別로 外資導入에 있어서 對象國의 多邊化가 必要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最近의 日本의 産業構造改編 움직임과 關聯하여 日本과의 새로운 國際分業體制를 形成해야 할 것이다. 即 最近 日本의 勞動集約的 産業과 公害産業이 海外로 進出하는 狀況에서 이들 産業의 國內需用을 기다리는 安易한 姿勢에서 벗어나야 한다. 戰後 世界를 通하여 登場한 가장 큰 課題가 南北問題인 바 이것은 先後進國家간의 垂直的 分業에 의한 交易條件의 不利때문이라고 일각에서는 主張되고 있다. 그러므로 日本과의 經濟協力에서는 勞動集

約的이고 組立加工的인 産業에 置重할 것이 아니라 서로 垂平的으로 補完되는 分業체제를 形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外資의 効率的 使用을 爲해서는 무엇보다 우리國民의 을 바른 수용能力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는 産業全體로 健全한 經營姿勢를 갖추고 導入資本을 効率的으로 使用하는 것이 先結問題이기 때문이다. 借款의 利率이나 据置期間보다 그 條件을 左右하는 것은 導入物資의 內容과 이의 能率的인 利用이다.

(3) 對日技術導入의 方向

지난 60年代의 韓日經濟協力実績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對日技術導入의 活潑이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全體 技術導入이 다른 나라에 비해 低水準에 있기 때문이며 또 對日技術導入도 民間베이스로는 活潑했다고 하나 日本会社の goodwill을 利用하여 販賣效果를 높이려는 技術提擄였고 政府베이스인 無償技術協力の 実績은 低調했다. 即 科學技術處에 의하면 1960年代에 우리나라가 外國으로부터 받아들인 無償技術協力の 總実績은 約 155,864 千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日本은 그중 約 1,070 千달러에 不過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日本技術의 導入方向은 우리나라의 技術導入體制의 強化와 政府베이스에 의한 技術協力の 強化를 期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日本의 經濟發展에 있어서 投資의 增加와 함께 技術의 진보가 큰 役割을 했다는 事實에 비추어

불 때 앞으로 우리나라가 重工業化를 中心으로 高度成長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技術의 向上이 뒤따라야 하고 자생적 技術開發水準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積極的인 技術導入을 推進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技術導入이 低調하였던 것은 根本的으로는 技術의 消化能力 결여에 있었다. 科學技術處에서 調査한 技術導入業체의 技術導入 實態分析에서 나타나듯이 導入技術에 대한 消化率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水準에 있다. 이에 따라 技術導入이 一般企業체에 대해 큰 有因이 되지 못하며 結果的으로 全体 技術導入規模는 낮은 水準에 머물고 있다. 그러므로 導入技術의 完全한 消化 및 活用을 위한 研究를 해줄 技術導入体制의 強化가 必要하다.

이와함께 導入技術의 質的인 改善을 위하여는 지금까지의 技術導入의 一般的인 傾向인 Turn-key 베이스方式을 積極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資本財에 부수되어 들어 오는 技術은 借款業체가 技術의 선택에 參與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며 동시에 機器裝置에 관하여 必要한 Soft-ware 등을 充分히 引取받지 못하므로 核心的인 技術의 習得이 困難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재에 包含되어 導入되므로 그 内容 代價 範圍가 分明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부진했던 政府베이스의 技術協力을 強化하여 지금까지의 낮은 規模의 實績을 增加시키고 技術協力事業의 内容에 있어서도 從來의 癌센터建設등 保健社會的인 分野만이 아니라 實際 産業生産과 關聯된 技術을 增進하여야 할 것이다. 特히 政府베이스의 協力에서는 技術의 實習 및 應用面의 練修에 重点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韓日間의 技術協力을 強化하고 이를 推進해
나갈 技術센터를 設立하여 이 기구를 통한 技術協력이 이루어 지도
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앞의 技術導入이 技術水準의 進歩를
위한 것이라면 政府베이스의 技術協力は 技術의 저변 확대라는 面이
있으므로 이와같은 기구를 통해 基礎 産業部門의 企業에 技術이 擴
散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